

국제수준에 맞는 해외저작권 출판풍토 만들어야



한국출판연구소는 지난 5월 16일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해외저작권 이용,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출판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해외 저작권 이용실태를 살피고 개선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출판연구소 윤청광 이사장이 <회복저작물 이용의 법리와 실제>에 대해, 세명대 미디어창작학과 김기태 교수가 <출판저작권 중개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윤청광 이사장의 <회복저작물 이용의 법리와 실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대해 윤 이사장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외국저작물 가운데 1995년 1월 1일 이전에 국내에서 이미 번역했거나 출판된 회복저작물은 1995년 12월 6일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일(2000년 1월 1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설했다. 회복저작물이란 1987년 10월 1일 이전에 공표된 외국인 저작물을 말한다.

한편 윤 이사장은 이날 포럼에서 아직도 외국의 저작물들을 여기저기 가위질해서 엮어 퍼내는 '편저' 행위가 국내에서 여전히 행해지고 있고, 그림이나 사진을 외국 책에서 무심코 가져오는 실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국 저작물의 저작자가 1957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했다면 이런 '편저'는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어 피소될 우려도 있고, 1995년 1월 1일 이전에 번역된 책은 2차 저작물으로써 계속 이용이 가능하나 원어 원문 그대로 이용했다면 위법 행위로 적발될 우려가 있

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 국내 저작자가 외국의 저작물을 가위질하여 자신의 창작 저작물인 양 엮어 놓은 '저서'의 경우, 앞으로 원천적인 저작권 침해로 시비에 휘말릴 위험도 높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윤청광 이사장은 외국의 지적 재산을 함부로 쓰는 시대는 갔고 그 대신 자국의 뛰어난 지적 재산을 새롭게 창출하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내 저작권 보호가 아직도 국제 수준에 못미치고 있고, 수출입에 대한 출판인들의 정보수집 의지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김기태 교수는 <출판저작권 중개실태와 개선방안>에서 저작권을 중개하는 중개업체 사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발행한 2002년 <한국출판연감>에 따르면 2001년도 번역도서 발행 종수는 9,680종으로 1999년 6,860종, 2000년 8,839종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김기태 교수는 이 많은 번역서를 내면서 외국에 지불한 로열티도 엄청나지만, 저작권 중개업체들이 챙긴 수수료도 막대하다고 밝히고 이른바 '대박'의 조짐이 보이는 원서를 확보하는 중개업체에서 자본력 있는 몇몇 출판사에만 정보를 독점 제공하고 거래를 종결짓는 바람에 단 한 건의 실적도 없는 업체들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서 판권을 놓고 출판사간의 불합리한 경쟁을 부추기는 중개업체가 많아 로열티는 로열티대로 올라가고 중개업체가 받아가는 수수료만 높아진다고 비판했다.

김기태 교수는 해외 저작물 이용 실태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을 '에이전시와 출판사간의 신뢰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서 찾았다. 출판사는 중개업체를 거간꾼으로 생각하고, 에이전시들은 저작권료 정산문제 등을 이유로 출판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결국 출판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작권 중개업체와 출판사의 상생적 협조 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교수의 결론이었다.

이번 포럼은 올바른 정보를 구축한 상황에서 해외저작권을 이용하고 해외저작물 이용과 관련해서 각 출판 업체들 간에 신뢰감을 쌓아야 한다는 점이 부각된 자리였다. ■

김청연 기자